

# '혁신도시 시즌2' 성공하려면 지역인재부터 챙겨야

## 광주시·전남도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나선 까닭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빛가람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혁신도시 의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된다. 지난해 18%에서 올해 21% 등 매년 3%씩 늘려 2022년 30%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평균 빛가람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6.4%대에 머물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 낮아=빛가람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은 현재 부산과 대구 등 다른 혁신도시보다 낮은 형편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구혁신도시의 채용률은 무려 41.2%에 달했고, 강원혁신도시 31.7%, 부산 26.6%에 달하는 등 빛가람혁신도시(21.5%)보다 훨씬 사정이 나았다.

그나마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채용 인원이 많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시는 지난 2016년 2316명(11.4%)을 선발했고, 2017년 2444명(16.2%), 2018년 상반기 724명(21.5%)을 뽑았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중 해마다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비해 월등히 채용률이 높은 대구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은 121명·527명이며, 비교적 채용인원이 많은 강

2022년까지 30% 의무화

지난 3년 평균 16% 머물러

협업체 구성 채용율 높이기

원도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806명, 1936명을 선발한 뒤 지난해 상반기에는 208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한국전력 등 중요 공공기관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주에 따라 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자리 잡는다면 광주전남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역 인재에게 꿈을 주는 혁신도시=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빛가람혁신도시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전 등 주요 이전기관을 따라 나주로 옮겨 오는 관련 기업이 늘고,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도 속속 나주에 터를 잡고 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더욱 많은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올해에도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25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1%를 지역인재 채용으로 선발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 520여명 상당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출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18망언 의원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18 광주모독 망언 규탄 및 망언 의원 제명 촉구 대회'에서 5.18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인재채용협업체를 구성해 이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자에게는 기관별 채용 요건을 소개하고, 지역 인재 취업 사례 발표와 모의면접 시연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전기관의 인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인재채용협업체가 구성되면 대학생들의 이전기관 탐방과 오픈캠퍼스를 늘려 이전기관과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18 진상규명 제대로 안돼 끊임없는 왜곡·망언"

청와대 5월단체 간담회...문 대통령 "5·18정신 헌법전문에 꼭 넣겠다"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5월 단체 등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철저한 5·18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7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광주지역 원로 및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은 미흡한 진상규명으로 인해 5·18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망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5·18 왜곡 처벌법 제정과 조속한 5·18진상규명조사

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5월 단체의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광주 5·18 기념식 때 밝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다시금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기회가 되면 헌법 전문에 꼭 5·

18 정신을 넣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진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5월 단체에 전달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좋은 분위기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다"며 "양분화로 인해 나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큰 적폐니 이것부터 정리하지는 말아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문 대통령·5월단체 만남 뒤에 강기정 정무수석 숨은 노력 있었다

'위로와 경청' 자리 제안 성사  
경색된 여야관계 풀기 전결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 광주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데는 강기정(사진) 정무수석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무수석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광주시민들이 크게 상처받고 5·18 단체 등 광주지역 원로 인사들이 강추위속에서 여의도로 상경, 연일 항의 투쟁에 나서자 문 대통령에게 '위로와 경청'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5·18 왜곡·왜곡 문제는 특정 지역과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시대와 역사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5·18 진상조사의 의지를전명하고광주영령과 희생자, 시민들을위로한것은 그 울림이 크다는 평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사회 전반의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현상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강화해오고 있는데 지난 1월 청와대에 입성한 강 정무수석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이슈를 점검하며 소통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 지낸바 있는 강 수석은 아직 강성 이미지가 없진 않지만 그동안의 정치적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여야 관계를 풀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야 관계가

최근 크게 경색되면서 이를 풀기 위한 강 수석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딱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강 수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여야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강 수석의 역할이 청와대 참모진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정무파트 콘트를 타워인 강 수석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고도의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강 수석이 난마처럼 얽힌 여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불안한 시대에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7)베트남

며칠 후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 회담 개최지인 하노이가 역사적인 장소로 떠오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도시임에도 덩달아가 겁게 느껴진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참전으로 우리와는 피로 얽힌 숙명적인 관계인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다. 베트남에 대한 열기는 최근 미술계에 서도 감지된다. 베트남여행을 다녀오면

서 베트남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자주 접했고,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한 것과 비례해 베트남 출신 작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역 화랑가에서도 베트남 작가들의 전시가 잇달아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국민화가로 알려진 부상 파이(1920-1988)는 하노이에서 태어나 특히 하노이거리를 그려온 작가로 유명하다. 부상 파이의 작품 '하노이 거리'는 60년대 공산 치하 하노이의 옛 거리 풍경을 특유의 회색과 갈색 톤으로 묘사해 어둡고 쓸쓸하지만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한 여인을 통해 삶을 향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딜레마에서도 작가로서의 소명과 예술에 대한 헌신을 잃지 않았던 작가답게 공평하고 불안한 시대였을망정 살다보면 살아질 수 밖에 없는 일상의 모습을 절제된 색채로



부상 파이 작 '하노이 거리'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풍스러운 거리가 금방이라도 잃어버린 유년을 떠오르게 하는 그림은 동시대인은 물론 현재 젊은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부상 파이는 베트남 현대회화의 산실인 인도차이나 미술학교를 나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등의 사조를 받아들여 베트남 화단에 새바람을 일으켰지만 공산 정부 체제에서 자유로운 회화세계를 펼치지 못하다가 베트남 개방 이후에 재조명된 작가이다. 시대적 고뇌를 그만의 미감으로 승화시킨 부상 파이는 우리에게 '베트남의 박수근'이라 불리기도 했다. <미술사박사>

###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